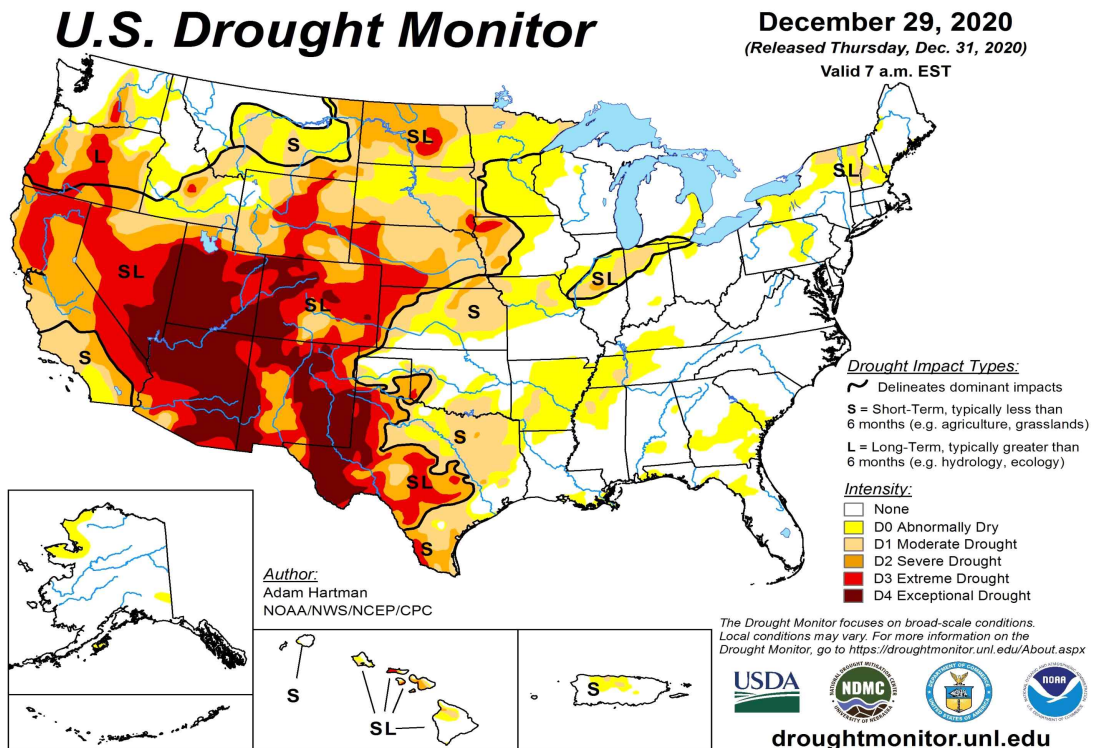


1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8, No. 1)

□ 미국 기후 현황(12/27~1/2)

조용히 시작했던 한 주가 2020년이 끝날 무렵, 특히 태평양 북서부와 국내 동쪽 절반을 가로질러 한바탕 폭풍우가 이어졌다. 고평원들과 중서부 먼 위쪽에는 약간의 강수가 영향을 주었지만, 평원 남부에서 옥수수 벨트까지 뻗어있는 여러 지역에는 상당한 눈이 내렸다. 한편, 텍사스 동부에서 오하이오 계곡 일부까지 흠뻑 젖는 비 (2~4 인치 또는 그 이상)가 쏟아졌다. 대서양 남부 연안 주들 가운데 일부가 호우로 잠겨서 마지막 수확 노력이 방해받았고 지역 홍수로 이어졌다. 대조적으로 플로리다 반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. 서부에서는 유익한 강수량이 남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잠깐 퍼졌다. 가뭄 피해를 입은 미국 서부의 일부 지역에도 국지성 비와 눈이 내렸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강수는 태평양 북서부에만 제한되었는데 이곳은 여러 차례의 요란이 해변으로 이동한 곳이다. 로키 산맥 중앙, 인터마운틴 웨스트 및 남서부는 평년보다 선선한 조건이 흔했지만 전국적으로는 2주 연속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다. 가장 극적인 주간별 변화는 남동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은 서늘한 날씨였다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° F 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바뀌었다. 국내 북부 층에는 다시 평년 이상의 온도가 우세하여, 뉴욕과 뉴 잉글랜드는 물론이고 몬타나와 다코타의 많은 곳들이 가장 지속적이었던 얼마의 온기(평년보다 최소 5~10° F 높은 기온)로 덮여 있었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 ()

: 내용없음

□ 세계 기후 현황(12/27~1/2)

■ 유럽: 광범위한 소나기가 널리 내렸는데 동쪽 재배 지역은 계절을 벗어나 따뜻했던 반면 서쪽 절반은 날씨가 추웠다. 일련의 폭풍이 계속해서 대륙을 휩쓸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 반도까지 3~60 mm (지역적으로 더 많이)의 비를 생성했다. 더욱이,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서부에는 폭우 (100 mm 이상)가 보고되어 국지성 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. 광범위하게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북부에서부터 폴란드 서부와 동독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; 이 지역들은 30일 강수 총량이 평년의 50% 미만에 불과하여 단기 건조가 다시 시작되었다. 기타 대부분의 유럽에서 휴면기 (북쪽) 및 영양기 (남쪽)에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은 여전히 양호했다. 대륙 동부는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 (평년보다 2-6° C 이상)으로 인해 경작지에 눈 덮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발칸 반도와 스칸디나비아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7° C 이상 높았다. 반대로, 최저 기온 (-8° C 가량)이 동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임계치보다 충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기는 했지만, 서유럽에는 평년보다 추운 조건 (평년보다 1-5° C 낮음)이 자리 잡았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내용없음

■ 동아시아: 내용없음

■ 호주: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의 먼 남부는 따뜻하고 소나기 (10~50 mm)가 내리는 날씨로 변화,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더욱 향상되었다. 그 비는 수수같은 건조지 작물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었으며 면화같은 관개 작물들에게 필요한 물 보충량을 줄여주었다. 동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다소 낮았고 (평년보다 최대 2° C 낮음)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높은 20도대에서 중간 30도대 중에 있었다. 밀 벨트내 다른 곳들 중에서 호주 남부와 서부에서는 국지성 소나기가 늦철 밀, 보리 및 캐놀라 수확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았던 것 같다.

■ 아르헨티나: 많은 지역에서 다시 내린 소나기가 발아기에서 개화기 중에 있는 다양한 여름 작물들의 건조 문제를 다소 해소해주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재배기 동안 날씨가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주었던 파라나 강 계곡 (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및 산타페와 엔트레리오스에 있는 인근 지역들)에 있는 다수확 경작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강수량은 25 mm를 밑돌았다.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았는데,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부에노 아이레스 남부의 여러 곳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생산지에서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현재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조기 파종 옥수수과 대두에 대한 건조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었다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30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81% 및 90%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. 면화 파종은 3%만 진척되어 84%로서 작년보다 14 포인트 뒤쳐진 상태이다. 한편, 밀은 93% 수확되어 작년보다 5 포인트 앞섰다; 선도적인 농작물 생산 주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밀과 보리의 수확이 각각 84% 및 100%였다.



■ 브라질: 브라질 중부와 남부 전체에서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서 여름 작물들, 특히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를 위한 수분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. 그러나 많은 지역들에는 여전히 평년을 밑도는 (25 mm 미만) 비가 내리서 소출 잠재력의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필요했다. 특히 우려되는 곳은 리오 그란데 도 술로서 이곳의 많은 부분이 12월 초 이후로 평년보다 건조해졌다.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92% 및 98% 파종되었다; 옥수수가 가장 많이 발달하여 이미 6% 수확이 이루어진 반면 대두는 13%만이 개화기에 도달했을 뿐이었다. 여름 온기 (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)가 취약 지역에서 건조의 영향을 악화시켜서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계절적으로 풍부한 비가 절실히 필요하다.